

여호수아



- 나레이션** 지난 40여년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는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땅을 바라보며 파란만장했던 120년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 여호수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땅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 백성1** 아니..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지?
- 백성2** 참... 좀 그렇네 아니..모세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먼저 앞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십시오.
단, 언약궤를 가까이 따라서는 안됩니다.
- 백성2** 아니 리더양반, 우리가 강을 건널 배라도 준비했나?
우리가 광야출신이라 수영을 잘 못하는거 알고있지?
- 여호수아** 우리는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 백성1** 아니 그게 정말이야??
- 백성2** 아 그...뭐냐... 그 홍해사건 같은 건가?
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 백성1** 아니 그게 사실이었나보네 근데 난 도저히 상상이 안되는데..
- 나레이션** 한참 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 여호수아**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도착하면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가셔야합니다.
- 나레이션** 제사장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 백성1** 아니, 저~게 뭐야?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는거야?
- 백성2** 아니!!! 저 위쪽을 봐봐. 물들이 내려오지않고 쌓이고 있어!!
- 백성1**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 나레이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속으로 들어간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은 멈추었고 이스라엘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나레이션

튼튼하게 서있었습니다.

무사히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은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야!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백성1

근데 할례가 뭐야?

백성2

그...있잖아. 그거...

백성3

맨날 그거 그거 하지말고 말을 해~

백성2

아니 그거 있잖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게 할례야

백성3

으아...아 그거야? 죽겠네 그거..

나레이션

이스라엘백성들은 적진과 가까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순종이었습니다.

할례가 낫기까지 이스라엘백성들은 진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40년만에 가나안땅에 도착한 이스라엘백성들은
이후로 여리고전쟁을 시작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땅을 확보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종과
희생을 통해 주어진 것을 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사회,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백성들은 가나안땅에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나라를 이루는 보다 높은 부르심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